

오규원 시에서의 '언어'의 현실응전 방식 연구

송기한*

- I. 머리말 - 현실과 시의 상관관계
- II. 언어의 도구화와 그 탈피
- III. '나(I)'의 존재방식과 사회적 응전방식
- IV. 자유에 대한 환각과 도취
- V. 오규원 시의 문학사적 의미

【요약】

이 글은 오규원의 전기시를 분석한 글이다. 오규원의 초기시들은 4.19세대의 그것으로, 산문화된 시의 그것으로, 『문학과 지성』 그룹의 그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난해하거나 해체적인 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상은 가장 일차적으로 그가 1960년대의 한가운데에서 성실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일 터이다. 1960년대적 조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 만큼 주체 의식이 확보되었던 때였고 산업화와 근대화가 뿌리 깊이 정착되고 있을 시점이다. 오규원의 시작 활동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 그 뿌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리를 둔 것이었다.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병리 현상들은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지니고 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겐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던 시적 장애물이었다. 전통적 서정시를 썼던 이전 시인들이 사회 현실과 유리된 채 추상화된 시를 써나갔다면, 오규원을 비롯한 신세대들은 시대의 장애물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변화한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오규원의 산문화된 시나 초기시들은 이러한 시대상을 담아내려는 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I. 머리말 - 현실과 시의 상관관계

오규원은 1941년에 출생했던 까닭에 대학 입학 직후 4.19를 겪게 된다. 때문에 정확하게 4.19세대라 할 수 있는 오규원은 1960년대 후반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데뷔한다. 그러나 시인이란고는 해도 오규원은 대학에선 문학과 거리가 먼 법학을 전공했고 등단은 더욱 엉뚱하게도 위생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이루어진다. 졸업과 제대 후 오규원은 역시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출판사나 잡지사, 기업의 홍보실 등 ‘어정쩡한’ 곳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간다. ‘어정쩡하다’고 했지만 실상 그러한 직업들은 오규원의 경우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님은 물론이고 학교를 떠나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의 어느 정도 유보된 공간, 학교와 사회의 접이 지대, 무언가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기 전의 유예된 시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오규원의 경우처럼, 시인으로 데뷔한 후 지속적으로 시집을 상재해 온 시인일진대 우리는 그에게 보다 시인으로서 어울리는, 시인적 정체성을 연상케 하는 직업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무릇 직업이란 그의 실존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직업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이다. 그의 직업이 비문학적이다, 혹은 비시적이다라는 식의 언급은 대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오규원에게 직업은 마치 아끼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을 구하지 못해 ‘대충 아무거나에’ 하며 채념하는 자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시’라는 내용을, 그것도 오규원이 염두에 두는 ‘시’의 내포를 안정적으로 담아줄 사회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행한 선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직업은 ‘시’를 직접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시’를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억지로라도 현실 위에 발 딛게 해주는 장치여야 할 것이다.

‘시’와 ‘직업’을 예워싸는 오규원의 생활공간을 확인하는 일은 일견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요소 사이의 함수 관계야말로 오규원의 개성과 시적 입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¹⁾ 가령 오규원은 시를 무엇이라 보았는가, 시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인가, 오규원이 ‘현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무엇이었고, ‘현실’을 넘어서는 비전을 그가 과연 가지고 있었나,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의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들이 모두 이 함수식 속에서 도출되고, 그 답 역시 그 안에서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직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다만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거나 다소 이상적으로 말해 자아실현을 위한

1) 오규원 시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준오, 「현대시의 자기반영성과 환유원리」, 『작가세계』 1994년 겨울.

김 현, 「깨어있음의 의미」,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80.

신범순, 「가벼운 언어의 폭풍 속에서 시적 글쓰기의 검은 구멍과 표류」, 『세계의 문학』 1991년 겨울

이남호, 「날이미지의의미와 무의미」, 『세계의 문학』 1995년 겨울.

정과리, 「안에서 안을 부수는 공간」, 시집『길 밖의 세상』해설, 나남 1987.

매개라는 식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오규원은 결코 적극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지성의 치밀함과 엄격함에 견주어볼 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²⁾ 오규원은 법학도다운 논리의 엄격함과 치밀함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그의 지성을 온전히 실현할 지점을 애써서 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규원은 현실을 감각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루트로 ‘직업’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오규원에게 ‘직업’은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오규원은 필사적으로 ‘직업’을 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오규원에게 직업은 호구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관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던 셈이다. ‘현실’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현실 감각을 유지시켜 준다는 열개 안에서 직업이 요구되었고, 이는 오규원이 치열하게 ‘시’를 안고 그것을 직조해낼수록 그에 비례하여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와 ‘현실’ 양 축을 동일하게 이끌고 나간 오규원의 시적 특색은 어떠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을까? 물론 ‘현실’과의 끈을 팽팽하게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오규원은 전형적인 4.19세대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접근하는 새로운 논리와 의식은 그만의 철저성을 드러내면서 그의 시세계를 당대의 다른 시인들의 시세계와 독창적으로 구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³⁾

2) 직업이 그의 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다 오규원이 무엇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 갑갑해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이나 일상사에서 어떤 직업의식이 뚜렷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이 글은 오규원의 전기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그의 초기시가 이후의 그의 시세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시와 중기시, 혹은 후기시로 그의 시를 일별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초기시의 기

II. 언어의 도구화와 그 탈피

1960년대는 주지하다시피 정치·사회적 태세가 시대의 전면에 부각되었던 때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상승하는 민중의 주체 의식에 의해 사회와 정치를 향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던 때이다. 그와 함께 이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탄압하는 과시즘 독재도 가일층 거세어졌다. 탄압이 투쟁을 부르고 투쟁이 탄압을 부르는 그러한 과정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이 시기를 우리는 ‘뜨거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민주화 투쟁이 확산되면서 문단에서는 순수·참여 논쟁이 일었는데, 그 속에서 순수시의 논리가 변명처럼 공소하게 울렸던 것도 ‘뜨거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던 현상이었다. ‘뜨거운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명분과 정의를 함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가불 폭력성 또한 유발하기 마련이어서 민주화를 위한 담론조차 그 사회의 다양성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효과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대결이라는 팽팽한 구도 하에 사회가 단일하고 거대한 담론 속에 휘말려 갈 때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해야 할 소임은 무엇이었을까? 정당한 논리라 하더라도 거둬드는 투쟁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지성과 의식의 고갈 현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민주화의 담론이 현장성을 잃고 투쟁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때, 그것의 의미는 반감될 뿐 아니라 담론 자체가 지배자의 그것처럼 억압만을 재생산하지는 않을 것인가?

오규원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 담론이 살아서 주체를 고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의식을 누르는 억압자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한 오규원은 이를 담론의 경직화, 언어의 관념화라고 진단하고 시적 언어란 이처럼 상투성에 길들여진 언어

준을 시기상의 개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1970년대 이전의 쓰인 시를 주로 초기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언어로 거듭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즉 시적 언어는 언어를 기성의 질서와 맥락으로부터 떼어내고 사물과 관념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여 사물을 살아있는 존재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사물은 언어에 의해 비로소 형태를 보장받아 소통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사물을 체제화 된 언어 내에 가두어 그것을 물화시킬 위험 또한 안게 된다⁵⁾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 인식 역시 언어가 지닌 기능과 한계를 그대로 지니게 된다.

인식의 마을은 회리바람이더라 흔들리는 언어들이더라
무장한 나무들이더라
공장에선 석탄들이 결사적이더라
인식의 마을은 겨울이더라 강설이더라
바람이 동상에 걸린 가지를 자르더라
싸늘한 싸늘한 적설기더라 밤이더라

「인식의 마을」 전문

환상의 마을에서
살해된 낱말이
내장을 드러낸 채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 누워 있다.

초조한 눈빛을 굴리는
약속이
불타는 西市의 거리를 지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4) 오규원이광호 대담, 「언어탐구의 궤적」, 『오규원 깊이 읽기』, 이광호 엮음, 문학과학사, 2002, p.31.

5) 송상일, 「자유를 뭐라 이름지을까」, 『현대문학』, 1980. 1.

그 위에 쌓인다.

「대낮」 전문

위의 시들에 등장하고 있는 상징들은 언어 및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식에 관한 오규원의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식의 마을」에서 ‘인식’은 그것이 ‘언어’에 의해 형성되는 까닭에 ‘흔들리는 언어들’, ‘무장한 나무들’, ‘겨울’, ‘강설’, ‘밤’과 같은 일련의 계열체들과 등가가 된다. 이들 계열체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意味價)들을 지니는 것들로서, 생명에 뿌리내리지 못한 허약함과 유연성을 잃은 경직됨, 그리고 곤궁함과 암울함을 상징한다. 반면 ‘석탄들’은 이들 부정적 계열체들과 대립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인식’의 인공적이고 반생명적 성질에 대비되는 원시적이고 정열적인 힘을 가리킨다.

「대낮」에 이르면 오규원의 상상체계는 더욱 흥미롭게 제시된다. ‘날말이 살해된다’고 하는 심상치 않은 표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언어’의 파괴를 매우 강도 높게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날말이 내장을 드러낸 채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 누워 있음’을 상상하는 것처럼 시인은 ‘언어’가 산산히 해체되어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패배하기를 원한다. 언어는 결코 사적이고 은밀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적이고 대중적인 것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전체를 ‘언어의 감옥’으로 몰고 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2연의 ‘약속’은 상투화되어 경직된 사회의 전체적 체계를 암시하는 것인데, ‘약속’이 ‘초조’와 불안에 떨며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 쌓이’는 이유도 그 중심에 언어가 가로질러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체제와 관습을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라 언어의 경직은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인식이 여기에 있다. 경직화되어 생기를 상실

한 죽은 언어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일이 중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회를 공고하게 하는 언어가 파멸하여 새로운 생성의 언어로 거듭난다면 그러한 언어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 역시 다른 면모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언어의 체계화와 관습화의 속성, 즉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사회 체제 속으로 편입되고 그 사회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속성은 언어 자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집요하고 끈질긴 성질이라는 점이다. ‘언어’와의 싸움은 사회의 진보와 이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일구어내야 할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그 실체를 확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난해하다. 따라서 이 대결은 매우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대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오규원은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의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고독한 투사의 면모를 지닌다.

사회의 견고한 체제는 처음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그것이 비대해지고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거대한 감옥이 되어 인간을 억압하게 된다. 반면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나 근거는 갈수록 희박해진다.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인류의 덩치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치밀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규원의 싸움이 단순히 상상의 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명을 상대로 하는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또 그가 서 있는 입지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에 놓여있는가를 암시해주기도 한다. 어찌면 이 싸움에서 오규원이 쥘 수 있는 무기는 유리처럼 약하디 약한 것일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싸움의 결과는 패배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김병익, 「물신 시대의 시와 현실」, 시집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해설, 문학과학사, 1978.

고 투쟁의 날카로움을 놓지 않는 오규원이라면 그에게 싸움의 지지가 되어 주는 것은 그 스스로 캐내고 발견하는 그만의 작은 영토, 곧 1연에서 말하고 있는 ‘환상의 마을’일 것이다.

여기에서 ‘환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현실에 정착하지 않는’의 의미를 갖는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것이 신기루일지라도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착하지 않으므로써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극단의 지점에 자리하는 것이 ‘환상’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생명과 순수가 원시적 형태로 담겨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는 순전히 인식 주관에 의해서라야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서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예각화되어 있을수록, 생명에의 의지와 열정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얼굴을 내미는 섬세한 지대이다. 오규원의 초기시에는 바로 그 ‘환상’에 의한 순수 지대가 맨얼굴로 거듭 현상하고 있거니와 그의 초기시에서 만나게 되는 이미지의 눈부심과 강렬함, 싱싱함들은 대부분 오규원의 세계관의 근거로 자리잡고 있는 ‘환상’의 지대에 의해 뿜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나(I)’의 존재방식과 사회적 응전방식

오규원은 4.19세대를, ‘나’라는 존재를 대문자로 의식한 최초의 세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 국가에서 한글로 교육을 받고 민주를 배우고 배운 민주를 실천에 옮기고 또는 실패를 체험한 주체로서의 의식이라는 것이다.⁷⁾ 한글을 배웠다는 것,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것,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해보았다는 것들은 모두 동일

7)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p.29.

하게 주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언어란 미분화된 자아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립시키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는 사회 속에서 ‘나’와 타자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언어 행위를 하고 이론을 실현하는 작업들은 자아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이를 주체로 세우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4.19세대가 문단에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시대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전면화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와 정치 는 더 이상 일부 소수자에 의해 독점되지 않았고 시민 의식을 학습한 무수한 ‘나’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4.19혁명이 실패한 것은 이들이 사회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이러한 경향을 막지는 못하였다.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오규원의 ‘나’ 또한 4.19세대의 이와 같은 정체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오규원에게 사회와 정치 는 ‘나’의 삶의 터전이자 호흡하기 위한 공기였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불완전한 공간이기도 했다. 사회와 정치가 오염되어 혼탁해져 있으면 가장 일차적인 폐해는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단일한 노선이 더 이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고정불변한 진리로 운위될 수 없다는 것, 만일 그러한 것이 독재적으로 군림한다면 그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4.19세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형성되었던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4.19세대의 모랄이자 현실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오규원이 사물의 실존을 말소하는 물화되고 시스템화된 언어뿐 아니라 소위 순수시 역시도 ‘음흉하다’⁸⁾고 하

8) 정끝별, 「서늘한 패러디스트의 절망과 모색」, 동아일보, 1994.1.

며 배척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서정시라 할 수 있는 소위 순수시는 사회와의 상관관계가 배제된 것이므로 현실에 대한 응전의 정도가 삭제되어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시대의 고통이 배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서정시를 가지고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제와 싸우기가 너무 힘들다⁹⁾고 한 오규원의 언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오규원이 사회와 현실에 대해 투쟁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그의 4.19세대다운 비판의 태도가 시형에 있어서 전통적 서정시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통 서정시가 세계를 자아에 환원시켜 자아와 세계의 동일시를 빚어내는 시형이라면, 오규원의 시는 오히려 자아와 세계가 서로 충돌하고 부조화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

안경 밖으로 뿌리를 죽죽 뺏어나간
나무들이
서산에서
한쪽 다리를 헛짚고 넘어진 노을 속에 허둥거리고 있다.
키가 큰 산오리나무의 두 귀가
불타고 있다.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이
으스름과 부딪쳐
기둥을 끌어 안고
누우런 밀밭을 밟고 온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보리 냄새가

9) 이원, 「'분명한 사건'으로서의 '날이미지'를 얻기까지」, 『작가세계』 1994년 겨울.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골목에서
작년과 재작년의 죽음이
서로 다른 표정으로
만나고
그해 죽은 사람의
헛기침 소리 하나가
느닷없이
행인의 뒷덜미를 후려치고 간다.

ARD「분명한 사건」 전문

사전적 의미에서 서정시는 자아의 정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정시에서 자아의 정서란 고유한 영역으로서, 세계와의 조우 및 간섭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빛깔로 남아있게 된다. 세계는 자아의 정서에 의해 채색되고 자아의 고유한 영역을 드러내는 한에서 의미화된다. 여기에서 세계는 적어도 피동적이거나 고정적이라고 간주된다. 자아의 영역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세계는 자아화되어 전유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수사법이 은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사물 B,C,D...는 자아의 정서 A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적 장치가 된다.

오규원 시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건」은 전통적 서정시의 형태에 견주어 볼 경우 자아와 세계의 화해로운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유보다는 환유의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나무들’이라든가 ‘노을’과 같은 자연의 사물은 전통적 서정시에서라면 자아의 내면을 담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형상화되었을 터이지만, 환유의 수사법에 의하면 ‘나무’와 ‘노을’은 전혀 초점화되지 않고 수평적 통사 구조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따름이다. ‘안경 밖으로 뿌리를 죽죽 뺏어나간’과 ‘나무’라든가 ‘서산에서 한쪽 다리를 헛짚고 넘

어진'과 '노을'의 관계는 은유를 위한 수직적 의미 구조와는 거리가 먼, 통합체의 수평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안경'과 '나무' 사이, '나무'와 '노을' 사이의 간격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더 이상 서로 겹치고 섞이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대신 세계는 서로 만나지 않는 개별화된 존재들에 의해 부조화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연의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과 '밤'의 수평적 연결, '그 밤의 신발 밑에서'와 '향긋한 보리 냄새'의 부자연스러운 결합, '보리 냄새'의 '어리둥절함'에서 암시되는 부조화의 상태 등 일련의 표현들은 모두 환유적 수사법에 해당되는 바, 이는 결국 시인이 전통적 서정시와 다른 각도에서 세계와 대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는 '나'와 행복스럽게 화해하기는커녕 3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죽음'을 음험하게 숨겨둘 수 있으며, '느닷없이' '뒷덜미를 후려치'는 섬뜩함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잠 못 이룬 새벽 2시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집의
 조그만 방의 새벽 2시쯤
 그 때마다
 집 옆의 계곡이 밤을 건디며
 쿨룩 쿨룩 기침하는 소리를
 들곤 했다고
 몇 년 만에 下釜한 나에게
 당신은 말했다.
 나는 그때 당신의 눈이
 내 오장을 훑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당신은 담담한 얼굴로
 무서운 사실을 얘기하고,
 고층 건물의 모진 옆구리에 걸려

기울어진 하늘이나
 어딘가 쓸쓸한 도시의 창문들의
 어깨를 매일 보는 나지만,
 절망이란 말이 쉽지
 어디 발에 차이는 돌맹이 같은가.
 그리고 매일
 바람에 흔들리며 부르르 떨고 있는
 나뭇잎의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과연 몇 사람이 보고 있을까.

「무서운 계절」 전문

‘밤을 견디며 쿨룩 쿨룩 기침하는 계곡’, ‘당신의 눈이 내 오장을 훑어내리는 것’, ‘무서운 사실’, ‘고층 건물의 모진 옆구리에 걸린 기울어진 하늘’, ‘쓸쓸한 도시의 창문들의 어깨’, ‘나뭇잎의 새파랗게 질린 표정’ 등의 일련의 언술들은 모두 세계의 도처에 놓인 불안과 좌절, 고독과 공포를 현시하고 있다. 각각의 불안과 공포의 이미지들은 일관성을 지니지만 이들 이미지 사이에는 하나의 초점을 향한 시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각 이미지들은 제각각 개별적인 장면이 되어 놓이면서 세계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속의 존재들인 사람이나 사물, 도시나 자연, 사물과 사물들이 모두 파편화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화는 시인이 세계를 서정적이기보다는 산문적인 것으로, 응축과 결정의 방법보다는 해사적 방법¹⁰⁾으로 구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를 산문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일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인식이자 현대시의 일반화된 시적 경향과 닿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모더니스트들 가운데 특히

10) 정과리, 「안에서 안을 부수는 공간」, 시집 『길 밖의 세상』 해설, 나남 1987.

『문학과 지성』 그룹의 멤버들이 수사법상의 환유구조와 통사론상의 산문화 경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¹¹⁾. 이는 근대화가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진 사회와 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후기 산업사회를 예견하는 징후에 해당한다. 시의 환유적이고 산문화된 양상이 포스트모던 문화의 해체시의 형태에 닿아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¹²⁾.

시를 해사적인 언표로 구축하면서 난해시를 양산해내었던 이들 그룹의 인식에 있어서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철저한 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예컨대 오규원이 응축과 결정을 주로 한 기존의 시적 방법이란 삶을 표백시키는 것이며 이미 산문화된 세계에서 순수성의 시를 고집한다는 것은 세계의 전략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¹³⁾이라 언급했던 것은 훼손되고 타락한 세계를 은폐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욱 신랄하게 폭로하고 그 바탕에서 세계와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것은 기성의 전통 서정시가 은유적 언표를 통해 자아를 초월시키고자 하는 수직적 세계 인식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이를 부정하고 구체적 현실로 하강, 언표의 수평적 구조를 통해 세계와 자아를 내부로부터 해체¹⁴⁾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11) 가령 이러한 사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상가가 후기구조주의자인 데리다(J. Derrida)이다. 그는 언어의 의미란 확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담론에는 차연의 논리가 작동한다고 본다. 이 논리에 의해 은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유에 의해 모든 담론들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데리다(J. Derrida)의 『그라마톨로지』(민음사, 1996, 김성도 옮김)를 참조할 것.

12) 해체적 사유의 기본 밑바탕은 비중심화된 문화이다. 따라서 그것이 지향하는 근본 목표는 산문지향적이다. 그리고 각주 9)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의 의미구조에 있어 은유보다는 환유에 의지하는 국면이 매우 크다. 이런 비중심화된 문화에 대해서는 리오타르(J.F. Lyotard)의 『포스트모던의 조건』(민음사, 1992, 유정완외 옮김)을 참조할 것.

13) 정과리, 앞의 글.

요컨대 기존 서정시는 오규원의 인식대로 이미 비대해지고 복잡해진, 그리고 타락하고 파편화한 자본주의와 싸우기엔 구조적으로 맞물리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기존 서정시는 ‘자아’를 중시하지만 사실 자아는 시대와 유리된 채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응전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것, 세계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더라도 부딪혀 싸워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 된다는 것을 4.19세대로서의 오규원은 그의 시적 방법론을 통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V. 자유에 대한 환각과 도취

오규원은 자신의 작품 속에 개성적인 삶의 표백을 누구보다도 잘 드러낸 시인이다. 그는 앞선 논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강한 투지를 지닌 시인이다. 그는 결코 삶을 편안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가장 안정된 순간에조차 그에게 삶은 안온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오규원에게 적은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언제나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오규원이 필사적으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시’와 ‘현실’ 양대 축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도 삶이 다하기 전엔 끝나지 않을 싸움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기 때문에 그는 ‘시’라는 정언 명령을 하나 내걸었지만 또한 싸워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눈을

14) 정과리, 앞의 글.

돌린다. 이 두 개의 축은 그를 형성하는 좌표가 되었고 그의 정체성의 핵을 차지한다. 그는 치열한 투사인 동시에 철저한 시인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 안에서 이 두 개의 축이 어떻게 길항하고 충돌하는가에 있다. 오규원은 이 두 축을 모두 이끌어가기 위해 나름의 논리도 구축해보았고 싸움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근거를 쌓기도 했고, 이를 허무는 행위 또한 반복해 왔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움직임을 잉태하는 보다 근본적인 지대가 있을 것인지, 두 축의 공통 기반이 과연 무엇인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오규원의 근원이자 실존의 얼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정시의 세계 인식과 그에 따른 통사 구조가 시대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체계화되고 도구화됨으로써 언어가 사물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규원의 시 세계 내에 두 가지 좌표축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자가 본질적인 ‘시’에 대한 반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강하게 ‘현실’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후자는 ‘현실’과의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나 ‘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욕망을 더욱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오규원의 비판적 의식에 의하면 시는, 특히 현대의 시는 현실과의 적극적인 교류 없이 존재 근거를 얻지 못하며 나아가 그것은 현실을 자극하고 능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두 가지 테제는 모두 현실을 대면하는 치열한 문학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서로 동시적이면서도 계기적인 문제항을 내포한다. 즉 시가 현실을 반영하되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규원의 현실에 관한 참여 의지가 이 두 테제로 집약되어 있다면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은 의당 시적 언어를 통해 구해져야 할 터이다. 오규원의 시세계 안에서 현실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시가 서정시의 양태를 해체하고 해사적이고 산문화된 형태로 나타

났다면 이러한 언어는 현실의 도구화되고 관념화된 언어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가?

눈물 속에 산소와 수소가
나란히 걸어가고
원자들이
타협적인 눈을 굴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강철 속에 5억 5천만 년 전에 죽은
삼엽충의 발바닥과
대장간의 망치에서 떨어진
오물이
정열적인 포옹을 하고 있다.
그 옆에
결론이 놓고 앉아 보고 있다.

서쪽으로 고개를 돌린
강철이 떨고 있다.
살과 살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찬 바람이 불고 때 아닌 눈보라가
五官의 뜰에 핀 꽃줄기를 비틀고 있다.
쓰러진 것들이 모두 달려와
질문의 창을 두드려도
거부의 근엄한 표정은, 오 육감을
하나씩 거두어들이고 있다.

수술과 암술이 떠나고 꽃잎과 꽃받침이 떠나고
꽃밭이 떠나고
마지막엔 풀이 흔드는 작별의 손이 보이고
인사도 없이 골목이 떠나고 길이 서 있다.
산소와 수소 사이에 호올로
삼엽충의 발바닥과 오물 사이에서 호올로.

「길」 전문

산문화된 세계에서는 마땅히 서로 어긋나기 마련인 자아와 타자의 간격을 괄호치고 동일화의 논리를 내세우는 서정시가 작위적으로 여겨지게 된다. '나'와 '너', 개인과 사회,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지배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 서로 대립하는 두 존재들 사이에 가시화된 평화의 화가 있다면 그 안에서는 진실이 은폐되어 있거나 거짓 화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애써 행복을 가장하지 않는 대신 냉소적인 어조로 가득차 있는 위의 시는 현대의 소외와 위선을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산소와 수소'의 '나란히 걸어감', '원자들'의 '타협적인 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관계의 부조화와 파편화는 '어깨동무'라는 행위를 단순한 제스처어 정도로 전락시킨다. 마찬가지로 '5억 5천만 년 전에 죽은 삼엽충의 발바닥'과 '대장간의 망치에서 떨어진 오물'의 '정열적인 포옹'은 엄청난 간격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존재의 결합이 얼마나 희화화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설정은 현대 사회에서 존재들이 겪는 고독을 암시하는 것이며 존재들 간의 융합과 행복이 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2연은 개별자로서의 존재가 타자에 의해 겪게 되는 고독을 몸서리치는 고통스러움으로 묘사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존재는 모든 감각을, 즉 생명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수술과 암술' 각각의 '떠남', '꽃잎과 꽃받침', '꽃밭'과 '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한 채 개별자가 되어 각기 '떠나는' 3연의 장면은 현대 사회의 조직화와 파편화가 얼마나 삶을 처참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총체성을 누려야 할 생명체가 갈가리 찢겨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도 새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는 현대 사회의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규원은 그의 시 형태를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상응하는 파행적 의미 구조로 취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비극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시에 대해 보여준 그의 실험적인 접근은 현대시를 난해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사회에의 적극적인 도전이자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펴본 오규원의 현실 참여적 시는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넘어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현실의 도구화와 관념화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그는 가지고 있는가?

현대 사회가 존재를 도구화하는 것은 대상의 실존적 특성을 외면한 채 그를 기능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비롯된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품성은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철저히 제거되고 소외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존재는 특정 목적의식 하에 무차별적인 관계망에 편입되게 된다. 또한 대상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자연스럽게 언어의 관념화로 이어진다. 사물을 인지하고 명명하는 언어가 사물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그 언어는 사물을 물화시키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물이 지닌 고유한 속성은 목적의식적인 언어화 작용 앞에서 흔히 말소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의 시에서의 ‘길’의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는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나 비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의미심장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시에서 ‘길’은 단순히 눈앞에 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모조리 상실한 채 개별자들이 남김없이 떠나간 자리에 나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존재와 존재의 위선적 만남과 사물과 사물의 거짓 결합이 깨지고 벌어진 그 ‘사이’로 ‘호올로’ 숭고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시에서 그것은 대단히 미약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미만해 있던 존재의 도구화와 언어의 관념화라는 패러다임의 고리를 끊을 수 있

는 섬세한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대에 길들여진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감히 그 ‘길’이 존재한다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점이다. 오직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며 도구적 목적 이외의 다른 실존이 엄청나게 큰 영역으로 실재함을 알고 있는 시선의 소유자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눈에 보이지도 쓸모 있게 여겨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실재하고 그로 인해 존재를 존재케 하고 세계에 큰 영향력 또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영역을 비어있는 지대, 영점(零點)의 지대, 오규원의 시세계에서 구한다면 ‘환상’의 지대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스라한 자유의 지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규원에게 이 지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 이 지대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오규원은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V. 오규원 시의 문학사적 의미

오규원의 시는 우리에게 하나의 유형화된 것으로 다가온다. 4.19 세대의 그것으로, 산문화된 시의 그것으로, 『문학과 지성』 그룹의 그것으로 읽히곤 한다. 때론 난해하다거나 해체적이라는 느낌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상은 가장 일차적으로 그가 1960년대의 한가운데에서 성실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일 터이다. 1960년대적 조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 만큼 주체 의식이 확보되었던 때였고 산업화와 근대화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을 시점이다. 오규원의 시작 활동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병리 현상들은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지니고 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겐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던 시적 장애물이었다. 전통적 서정시를 썼던 선배 시인들이 사회 현실과 유리된 채 추상화된 시를 써나갔다면 이들은 시대의 장애물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변화한 시대에 조용하는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오규원의 산문화된 시는 이러한 시대상을 담아내려는 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오규원은 언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체제내화 됨에 따라 귀결되는 관념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된 사회에서 만연케 되는 도구화된 이성의 폐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규원은 언어가 사물을 명명할 때 벌어지는 간격이야말로 이성의 도구화와 언어의 관념화의 분명한 증거라 여긴다. 그리고 그러한 틈이야말로 존재의 실존을 유실시키고 생명을 파괴한다고 여긴다. 현대의 메카니즘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시선으로 포착되기 힘든 이 지점을 오규원은 그의 시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 생명이 짝되고 시가 소생할 수 있는 섬세한 영토로 삼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을 비껴난 영토인 까닭에 오규원의 용어에 의해 ‘환상’의 지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실체가 없다거나 현실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규원은 이 지대를 시세계의 근원지로 삼음으로써 현실과의 치열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나아가 현실을 넘어서는 전망을 유도해내게 된다. 또한 산문화된 시가 단지 해체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사물의 생생한 이미지를 용해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이 점은 오규원 시의 4.19세대 혹은 『문학과 지성』 그룹의 그것이라는 유형적 분류와 겹쳐지지 않는 오규원만의 고유한 세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에 대한 철저함과 현실에 대한 집요한 응전의 태도가 가로놓여 있었던 데에서 비롯한다.

주제어(Key words): 오규원(Oh Kyu Won), 언어(language),
날 이미지(raw image), 나(I), 환유(metonymy),
은유(metaphor), 자유(freedom), 포스트모던(post-modern)

참고문헌

- 김병익, 「물신 시대의 시와 현실」, 시집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해설, 문학과지성사, 1978.
- 김준오, 「현대시의 자기반영성과 환유원리」, 『작가세계』 1994년 겨울.
- 김 현, 「깨어있음의 의미」,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80.
- 송상일, 「자유를 뭐라 이름지을까」, 『현대문학』, 1980. 1.
- 신범순, 「가벼운 언어의 폭풍 속에서 시적 글쓰기의 검은 구멍과 표류」, 『세계의 문학』 1991년 겨울
- 오규원·이광호 대담, 「언어탐구의 궤적」, 『오규원 깊이 읽기』, 이광호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2.
- 오규원, 『분명한 사건』, 한림출판사, 1971.
- 오규원, 『오규원시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2.
-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 이남호, 「날이미지의의미와 무의미」, 『세계의 문학』 1995년 겨울.
- 이 원, 「분명한 사건」으로서의 ‘날이미지’를 얻기까지, 『작가세계』 1994년 겨울.
- 정과리, 「안에서 안을 부수는 공간」, 시집 『길 밖의 세상』 해설, 나남 1987.
- 정끝별, 「서늘한 패러디스트의 절망과 모색」, 동아일보, 1994.1.
- J. Derrida,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민음사, 1996.
- J. F. Lyotard,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외 옮김, 민음사, 1992.

A Study of language of the Oh Kyu Won's The First Poetry

Sohng, Ki-Han

This paper studies the features of the first poetry of Oh Kyu Won and analyzes the dissolution of Oh Kyu Won's literature. It is times pointed out that features of play of signifiant's features and modernism poetry of Oh Kyu Won was features of the first poetry.

The features of raw image and metonymy, metaphor of Oh Kyu Won has been involved features the first stage poetry. That is common community in infancy period. Especially it restarted experience of his native place with that period. And that was resisted the modernity and reason.

The poetical investigation of Oh Kyu Won as we pointed out in his text, embodies a summit of Modern Korean poetry. That is to say, his orientation in his native place,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in his middlle poetry. The fire image is the first stage poetry. This work is the first stage departing from anti-modernity.

송기한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전화번호: 017-282-4906
전자우편: ksohng@dju.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